

중학교 학생부 독서 활동도 중요한가요?

중2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는 독서 활동 관련 공지도 없고 아이들도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만일 자사고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중학교 학생부의 독서 활동 상황도 챙겨야 하는지, 몇 권 이상 읽어야 좋은지 궁금합니다.

_김정애(45·서울 동작구 상도동)

신입생 선발에서 독서 활동을 평가하는 고교도 있으므로 평소 착실히 독서 역량을 키우고 학생부에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2단계 면접에서 독서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산고 오영식 교사(입학관리부장)는 “상산고는 인성·독서 면접에서 개별 문항으로 독서 관련 질문을 한다.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독서 활동 상황을 토대로 하는데, 면접관에 따라 질문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지역 단위 자사고는 1단계 추천 후, 2단계 서류 기반 면접에서 독서를 포함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치입시연구소길 김학수 소장은 “학생부 독서 목록을 보고 묻기보다는 지원 동기를 질문하면서 의미 있게 읽은 책을 묻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오 교사는 “읽었던 책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진로와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독서 권수는 중요하지 않고 점수화하지도 않는다. 학생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한 학기에 최소 5권 이상은 읽는 듯하다. 어려운 책을 기록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 경우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으므로 중학생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해 깊이 있게 읽는 걸 권한다”고 강조합니다. ⑧

MORE TIP

일반고 진학 시 학생부 독서 활동이 따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사고력과 논리력 확장, 진로 탐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 이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학생부 독서 활동 기록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김 소장은 “현재 고1부터 독서 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지만 독서 역량은 필수적이다. 입시 관점에서 볼 때도 제시문 면접과 논술 등은 독서를 통한 배경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수능 과목인 <독서>나 <화법과 작문> 등도 책 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영역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취재 이지영 리포터 easygoing@naeil.com

수시 합격 후 예치금을 냈는데, 다른 대학에 총원 합격한다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대학에 등록 의사를 밝히는 의미로 '예치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최초 합격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다른 대학에서 총원 합격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전지윤(47·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예치금 납부 대학에 합격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이 해당 대학에 등록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합격 후 신입생 등록금 납부 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치금 납부를 통해 해당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수시 모집에서 합격하고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경기 오산고 한태명 교사는 “만약 수시 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복수로 합격했다면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총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먼저 합격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면 이미 납부한 예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등록 포기 방법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해당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기간 안에 한 대학에만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있어서,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낸 것이 확인되면 지원 위반자로 처리돼 합격이 취소됩니다.

만약 예치금을 납부한 대학에 등록 포기 및 예치금 환불 신청을 했으나 환불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교사는 “이때는 먼저 합격한 대학에 '등록 포기 신청서'나 '등록금 환불 신청서' 등을 제출한 뒤 총원 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는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

MORE TIP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시 모집에 합격해 예치금을 납부했다면 어떨까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등록 금지는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학 연도가 다르므로 이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등록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기 전,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 자퇴원을 제출하는 등 대학의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